



손바닥 위 클라우드 세상

박 천 서 총무팀

최근에 “클라우드(Cloud)”란 단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자주 들을 것이다. 하지만 단어는 익숙한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실 기술적으로 파고든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쉽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클라우드란 구름(Cloud)에서 유래된 말로 형태가 없는 존재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형태가 없는 자원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웹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

쉬운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각종 자료들을 외장형 하드나 USB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에 옮겨서 보관하여 사용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외장 저장 매체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보안의 위험도 뒤따르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Apple의 아이클라우드, SKT의 T클라우드, Naver의 N드

라이브, Daum의 다음클라우드 등이 있다. 보통 무료 저장용량을 50GB에서 많게는 수백GB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기능은 역시 문서나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와 연동이 가능하며 PC에서 곧바로 클라우드 저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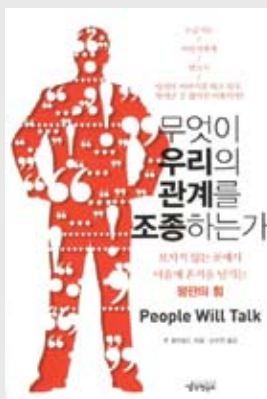
간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 대부분의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간 자동 동기화 기능도 제공하며 지정된 사용자끼리 클라우드 내에 있는 폴더공유 또한 가능하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 즉시 자동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며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폴더공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스마트기기 대중화의 성공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잠자는 주머니속의 스마트기기가 아닌 정말로 똑똑한 나만의 스마트기기가 될 것이다.

BOOK 이달의 책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

존 휘트필드 지음 | 생각연구소 | 392페이지



2004년 'Review of General Psychology'에 실린 한 논문에는 “성인 대화의 60% 이상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추정치가 실려 있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상당 시간을 남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셈!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매일 타인의 평판을 생성하고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평판도 만들어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인 '평판'을 진화생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설명하고 있다. 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을 통해서 뒷담화와 소문으로 대표되는 평판의 숨겨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짚어낸다.

저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소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평판이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평판은 다른 사람의 것!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평판을 활용하고 있음을 깨우쳐준다. 나아가 익명성, 사생활 파괴로 대변되는 온라인 사회의 평판에 관해 진단하면서 집단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로까지 평판의 범주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한다.